

다시 부는 명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18

華嚴論云 以自心根本無明分別之種
 화엄론은 이자심근본무명분별지종
 便成不動智佛 以法界體用
 편성부동지불 이법계체용
 以爲信進悟入之門 從信及入爲進修
 이위신진오입지문 종신급입위법수
 乃至經十住十行十回向十地十一地
 내지경십주십행십회향십지십입지
 捷不離本不動智佛
 종불리본부동지불
 不離一時一念一行上 而有無量無
 불리일시일념일행상 이유무무량
 邊不可說不可說法虛空界微塵數法門
 변불가설불가설법계허공미진수법문
 何以故 爲法界及根本不動智上
 향이故 爲法界及根本不動智上
 향이고 위종법계급근본부동지상
 爲信進悟入故
 위신진오입고

便成不動智佛 從信乃至究竟位
 편성부동지불 종신내지구경위
 無有轉變成壞之相 可謂心性
 무유전변성괴지상 가위심성
 本來自在 隨緣似轉而常無變易者也
 본래자재 수연사전이상무변이자야

그리고 또 '삼승(三乘)의 방편에서 가르치듯이, 용렬한 견해를 가진 중생을 상대로 해서 세간에는 삼세(三世)의 성품이 있다고 한 말과 불과(佛果)는 삼아승지경 밖에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르다' 하였다. 이런 논지로 보면 원종(圓宗)을 원만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분별을 일으키는 근본 무명이 바로 흔들림 없는 지혜를 이루고, 믿음의 지위에서 마지막 지위에 이르기까지 변하지도 바뀌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이른바 심성은 본래 자재하여 인연을 따라 변하는 것 같지만 변

<화엄론>에는 자기 마음 가운데 본

결림없는 연기법 말하면서도 왜 자기 마음 작용 보지 못하나

별하는 종자인 근본 무명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지혜의 부처를 이루고, 법계의 본체와 작용으로써 믿음과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삼으며, 여기에서 더 뒤야 십주(十住:보살 수행에서 편안히 머무는 지위)·십행(十行:보살의 수행에서 중생 제도에 노력하는 지위)·십회향(十回向:중생 제도와 함께 불교(佛果)를 향해 노력하는 지위)·십지(十地:흔들림 없는 부처의 지혜를 내는 지위)·십입지(十地:성인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는 지혜의 부처를 떠나지 않는다. 한 순간, 한 생각, 한 법, 한 행도 떠나지 않은 가운데, 한일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법계와 허공계의 티끌 수같은 법문은 거기에 들어있다. 왜 그러나 하면 법계와 흔들림 없는 근본 지혜 위에서 믿고 나아가 깨달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였다.

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近來 唯習言說者 雖談法界無礙緣起
 근래 唯習言說者 雖談法界無礙緣起
 初不返觀自心之德用
 초불반관자심지덕용
 既不觀法界性相 是自心之體用
 기불관법계성상 시자심지체용
 何時開自心情塵 出大千經券
 하시기개자심정진 출대천경권
 經不云乎 知一切法 即心自性
 경불운호 知一切法 即心自性
 成觀慧身 不由他悟
 성취혜신 불유타오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비록 법계의 결림 없는 연기법(緣起法)을 말하지만 애초부터 자기 마음의 덕의 작용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법계의 성상(性相)이 바로 자기 마음의 본체와 작용임을 보지 못하는데 언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티끌을 얻어서 삼천대천세계의 큰 경전을 연설하였는가. 경에도 '일체의 법이 마음의 자성(自性)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룬다. 결코 다른 것에 의해 깨닫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았는가.

又云 不同三乘權教 約劣解家生
 우운부동삼승권교 약열해중생
 存世間三世之性 說佛果 在三輪能之外
 존세간삼세지성 설불과 재삼승지외
 據此論之旨 圓宗圓信之者
 거차론지지 원종원신지자
 以自心根本無明分別之種
 이자심근본무명분별지종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가까이서 뵈 큰스님

벽암스님

“선업 저축하는게 제일 부자”

저울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계룡산 자락. 서울서 새벽에 출발해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서야 신원사 산문 앞에 도착했다. 사천왕상과 범종각 아래로 펼쳐진 눈·밭이 아련하다. 수 백여 년을 버티고 선 대웅전은 일주문을 처음 세운 보덕(寶德) 스님의 기상을 내뿜고 있었다.

신원사 경내는 청정했다. 돌, 잔디, 기와, 벽돌 모두 세간의 모습과는 달리 본래의 빛깔을 그대로 발하며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신원사는 651년 백제 의자왕 시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수행자에게 승풍(僧風)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던 보덕 선사 뜻이 서려있는 곳이다. 지금은 벽암 스님이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기자가 오전 10시 이전에 신원사에 도착할 마음으로 새벽에 서울서 출발했던 것은,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벽암스님의 문 밖을 나서서 게 하루에 고작 3~5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중 공양을 위해 선방을 나서서 오전 10시와 오후 3시가 스님을 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한다.



◇실천하지 못할 것은 말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시는 벽암스님은 언제나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이 날카로움과 자상함을 함께 갖춘 스님이 되신 것이 아닐까.

“스님, 이렇게 좁은 방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중에게 방이 좁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방장(方丈)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유마거사의 방이 일장사방(一丈四方)이었다는 것에서 왔는데, ‘한 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붙여진 것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남자의 본분이에요. 또 찾아주는 이 있으면 만나고, 그 인연에 맞춰 법문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공덕이지요.”

수개월 간 스님의 생활을 지켜 본 신원사의 한 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큰 스님의 일상에서는 흐트러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매사에 정성을 쏟고 관심을 보이시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정하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스님이 선방을 나서자 신원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동(學童)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스님의 거동을 돌기 위해서다. 원래 스님의 경례나 연배라면 죽어 시봉하는 스님이 있을 법한데, 스님은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하신다. 대중 스님들이 벽암 스님에게 시자 돌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천하지 못할 것은 말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시는 벽암스님은 언제나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이 날카로움과 자상함을 함께 갖춘 스님이 되신 것이 아닐까.

“스님, 이렇게 좁은 방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중에게 방이 좁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방장(方丈)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유마거사의 방이 일장사방(一丈四方)이었다는 것에서 왔는데, ‘한 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붙여진 것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남자의 본분이에요. 또 찾아주는 이 있으면 만나고, 그 인연에 맞춰 법문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공덕이지요.”

수개월 간 스님의 생활을 지켜 본 신원사의 한 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큰 스님의 일상에서는 흐트러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매사에 정성을 쏟고 관심을 보이시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정하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스님이 선방을 나서자 신원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동(學童)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스님의 거동을 돌기 위해서다. 원래 스님의 경례나 연배라면 죽어 시봉하는 스님이 있을 법한데, 스님은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하신다. 대중 스님들이 벽암 스님에게 시자 돌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자기공부도 바빠텐데” 한사코 시봉 거절

그때마다 스님은 “불가에 격이 있을 수 없다. 자기 공부도 바빠텐데 언제 남 시중들 시간이 있겠느냐”며 거절하셨다고 한다.

“스님은 대중의 보시를 받아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지 않은 스님은 죽어서 소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힘든 구석도 있지만, 내 몸 하나 내가 견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시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촌각을 아껴 공부에 써야 합니다.”

계룡산을 휘감고 있던 차가운 기운이 선방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몰아닥쳤다. 이때 스님은 따뜻한 생각을 해 보자며, 예전의 일화 하나를 들려주셨다.

“파사로운 햇살이 있는 날이었어요. 날이 좋은 선방을 나온 김에 산문까지 산보를 갔다가 흐드러지게 핀 빛꽃을 보았어요. 그러자 나도 모르게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죠. 젊은 시절에 공부를 잘 못해서 지금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

어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벌떡 일어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만드는 데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부처님께 삼배하고 기필코 성불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스님의 이야기는 불자라는 이름만 붙이지 말고 진실로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입니까?”

“맞아요. 우선 마음을 비우고 항상 생활해야 해요. 또 바른 신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심을 가지려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팔정도에 따라 살면 되지요. 그리고 삼독을 버리고, 자성을 밝히도록 부지런히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보시했던 사람의 집에 소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은 면할 수 있어요.”

스님의 점심 공양은 너무 간소했다. 밥과 미역국, 그리고 소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래도 스님은 달게 드신다. 그리고 함께 공양하는 대중 스님들에게 “스님들 많이 드세요. 대중 스님들이 몸이 무거워야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라며 농담을 던지는 여유도 보이신다.

“지금까지 참선과 기도로 살아왔으니 참선과 기도 말고 무엇이 더 있겠어요. 깨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이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혁명 저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운명에 대하여 대처(對策)한다면 행복(幸福)의 역(厄)을 면(免)하고 전화(轉禍)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심물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비밀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책의 구성 (공인된 저자(김용) 추천)
 (대중, 그 출생의 비밀) (꿈풀이 실용서)
 부록 (꿈은 부부꿈)

1. 허서 명리진평 신국판 / 해서 조영수 편지 / 정가 30,000원
2. 21C 최첨단 우리말 대운 안내서 4x6판 / 해서 조영수 편지 / 정가 15,000원 (대)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지 / 정가 12,000원 (대)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 / 양정복 김용서 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인원 김용서 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정복 / 송철수 지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실습부 신국판 / 양정복 이상욱 지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양정복 김용서 지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양정복 김용서 지 / 정가 15,000원
11. 신도정비결 신국판 / 백용 지 / 정가 8,000원
12. 사주입상록 신국판 / 양정복 이상욱 지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 / 양정복 이상욱 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용서 편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정복 김용서 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심물이 대백과 신국판 / 정철우 지 / 정가 17,000원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생기론)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사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訣)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吉)과 흉(凶)으로 나뉘어 있다.
2. 길(吉)과 흉(凶)은 풍(風)과 물(水)과 나무(木)와 불(火)과 흙(土)이 모여 있다.
3. 나쁜 땅(凶)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4.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5. 우리는 땅에서 나온 생물(生物)의 정체를 먹고 산다.
6.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운 김용서 지음 신국판 양정복 권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지

지금 질실이 당신이 버려서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행**을 치르고 **준행**을 사고 **준심**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정복 권 40,000원

1. 허서 명리진평 신국판 / 해서 조영수 편지 / 정가 30,000원
2. 21C 최첨단 우리말 대운 안내서 4x6판 / 해서 조영수 편지 / 정가 15,000원 (대)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지 / 정가 12,000원 (대)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 / 양정복 김용서 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인원 김용서 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정복 / 송철수 지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실습부 신국판 / 양정복 이상욱 지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양정복 김용서 지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양정복 김용서 지 / 정가 15,000원
11. 신도정비결 신국판 / 백용 지 / 정가 8,000원
12. 사주입상록 신국판 / 양정복 이상욱 지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 / 양정복 이상욱 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용서 편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정복 김용서 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심물이 대백과 신국판 / 정철우 지 / 정가 17,000원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 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 쓰여 족자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특별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 원처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뒷부분은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수색하였습다.

예를 들어, 환관이나 사관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를 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 이미 일어났던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 자기 기가 저지러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揭示해 놓아, 미리 그 내용을 지적함으로써 來人의 顏色와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 들은

● 책 값 W250,000원
 ● 책 질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호주 가죽메이커지·금박 950페이지·미색용지·유림인쇄)
 ● 입금처: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한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발송해 드립니다.
 ● 전 화: (02)993-8680
 ●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卜問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이 易書에 비해 비싸지는 합니다. 만 전문인이므로, 이 책을 활용하여 현직 명성학과 학문성취에 비하면 매우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후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다. 그러다 후, 의문되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卜子 曠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다.

또,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하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출판卜問 曠史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보기 바랍니다.